

‘최저임금 1만원’... 자영업자·근로자 모두 ‘불만’

‘1만30원’ 제도도입 37년만에 돌파
使 “경제적 부담”·勞 “최저 인상률”
영세 상인 “인건비 부담 더 커져”
“실질임금 삭감...고용 위축”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5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209만627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2021년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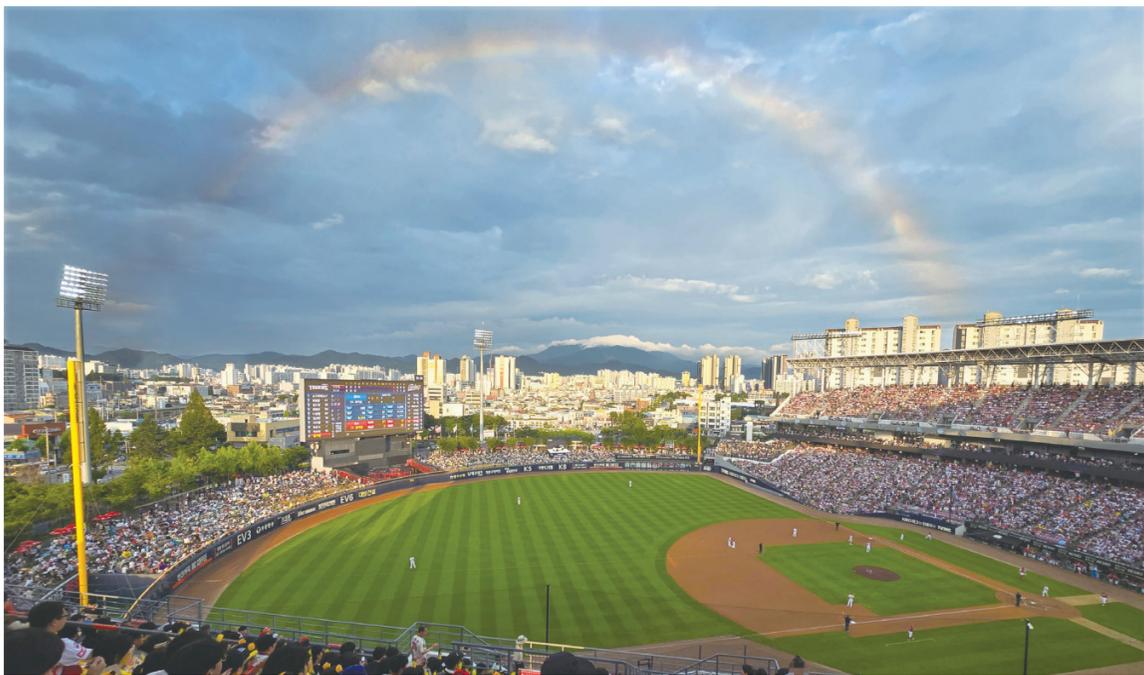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이라고 반발하는 등 양측 모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광주지역 영세상인들과 저소득 근로자들 역시 ‘인건비 부담’과 ‘실질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불만을 쏟아냈다. 우선 지역 영세상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1만원’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토론했다.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문모(60)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1만원’을 돌파하니 큰 부담을 느낀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 점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테니 우려가 된다.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한달 순이익으로 보면 업주가 노동 시간 대비 자기 자신의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뜬 무지개 주말인 지난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2만500석 전석이 매진됐다. 18번째다. 6연승 후 후반기 첫 홈경기에서 부진했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를 응원이라도 하듯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무등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무지개가 피어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알립니다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 모집

소울푸드 아카데미 강사진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총장



최철
광주시립 오페라단 예술감독



모종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이경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한근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한스컨설팅 대표



박준영
재신전문변호사

호남을 대표하는 정문지 전남일보가 제5기 소울푸드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지역 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정중히 모십니다.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식 습득과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관계망 확장, 미래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정보 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정치, 경제, 로봇공학,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강사진을 초빙해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회원 친목 향상을 위한 전시 관람 등 품격 높은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전남일보가 생산하는 주요 콘텐츠 공유, 독자위원 및 편집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지역 내 건전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인원 000명
행사내용 리더십 포럼 7회, 고품격 체육행사, 전시관람
기간 2024년 9월~2025년 5월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全南日報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